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7.(금) 10:00 배포 2026. 11. 26.(목) 18:00

「한중일 및 아세안+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」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

-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, 한중일(주재) 및 아세안+3 차관회의 참석
- 한국의 '27년 아세안+3 의장국(한·싱가포르 공동) 수임 결정
- 일본·베트남·싱가포르 재무차관 등과 양자 면담 진행

11.25(수)~26일(목) **일본 교토**에서 「**한·중·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**(이하 "한중일 회의")」와 「**아세안+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**(ASEAN+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' Meeting, 이하 "아세안+3 회의")」가 개최되었다. 우리나라에서는 **재정경제부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**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**한중일 차관회의를 주재***하고, **아세안+3 차관회의**에서 주요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한중일 회의 의장국: 한국 / 아세안+3 회의 공동의장국: 일본, 필리핀

이번 회의에는 **한·중·일 3개국** 및 **동남아시아국가연합**(ASEAN) **11개국***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, **아세안+3 거시경제조사기구**(AMRO**), **국제통화기금**(IMF), **아시아개발은행**(ADB)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.

* 아세안 11개국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동티모르('25.10월 아세안 회원국으로 가입)

** **A**SEAN+3 **M**acroeconomic **R**esearch **Of**fice: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, 역내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 수행, '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후 '16년 국제기구로 전환

먼저 **한중일 회의**에서 문 관리관은 **지정학적 불안, AI 호황 지속가능성**에 대한 **불확실성**이 높은 상황에서 **한·중·일 3국**이 아세안+3 재무트랙 뿐 아니라 **다양한 경제·금융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**하는 것이 중요하며, 이는 **역내 경제 안정에도 기여**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
이후 개최된 **아세안+3 회의**에서 참석자들은 **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, 금융협력 주요 의제**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**아세안+3 거시경제조사기구, 아시아개발은행**, **국제통화기금**이 **경제 동향·전망과 리스크 요인**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. 주요 국제기구들은 **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**에 따른 **에너지 충격에도 불구**하고, 전세계적인 **AI 투자 확대**가 **수출·투자를 견인**하면서 **역내 경제**는 **견조한 성장세를 유지**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. 다만, 아세안+3 지역이 **반도체 등 AI 공급망에서 핵심 거점 역할**을 담당하고 있어 **역내 경제성장은 AI 관련 성장세**에 따른 **영향**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. 한편, **지정학적 불안**, **이상 기후** 등 다른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, 이에 대비한 **정책여력 확보**를 제언하였다.

문 관리관은 한국도 **AI 호황**에 힘입어 **수출·투자가 확대**되고 있으며, IMF도 이를 반영하여 지난주 **한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**를 **기존 3.3%에서 3.9%로 대폭 상향**했음을 언급하였다. 다만, **AI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**, **산업간 불균형 성장**으로 인한 **경제 양극화 심화**, AI 활용 사이버 공격과 같은 **금융안정성 저해** 등 **리스크 요인**을 지적하며, 단기적으로 이에 대한 **대비에 만전**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 또한,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**경제양극화 해소**의 중요성과 오늘날 AI 호황에 따른 성장의 결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**'모두의 성장' 구현**을 위한 **한국정부의 정책방향**을 소개하였다.

역내 금융협력 관련하여서는, **역내 금융안전망**인 **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**(CMIM*)의 **실효성 제고**를 위해 현재의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을 **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원구조 재편 관련 논의**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. 금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건전한 지배구조 등 **납입자본을 관리할 법인격**에 대한 **핵심원칙에 합의**하고, 향후 **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**을 **논의**하기로 하였다. 또한, **아세안+3 거시경제조사기구**의 **거시경제 감시역량 강화**를 골자로 하는 **중기 실행계획**('27-'29년) 및 기존 **역내 채권시장 발전 이니셔티브**를 **역내 채권·금융시장 발전 이니셔티브**(ABFMI)**로 확대한 **중기 로드맵**('27-'30년)을 승인하였다.

* **C**hiang **M**ai **I**nitiative **M**ultilateralisation: 아세안+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(총 2,400억불 규모, 우리나라 분담금 384억불(분담비율 16%))

* **A**sian **B**ond and **F**inancial **M**arkets **I**nitiative: 역내 채권·금융시장 발전 이니셔티브

마지막으로 **한국의 내년 아세안+3 회의 의장국 수임**이 결정됨에 따라 문 관리관은 **공동의장국인 싱가포르** 측과 함께 회원국들에게 **'27년 주요 추진 과제**에 대해 소개하였다. 특히, 최근 **금융분야에 AI 활용이 확산**되고, **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사례**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, 내년에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등 기존 의제에 더해 **"AI와 금융안정성"을 신규의제**로 제안하였다.

한편, 문 관리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**일본·베트남·싱가포르 재무차관과 양자 면담**을 갖고 **양국 간 경제협력** 및 내년 **아세안+3**를 비롯한 **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**을 당부하였다.

내년「**아세안+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**」는 **4월**(싱가포르), **11~12월**(잠정, 한국)**에 개최**될 예정이며,「**아세안+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**」는 **5월, 일본 나고야**에서 개최되는 제60차 아시아개발은행(ADB) 연차총회 기간에 함께 개최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	책임자	과 장	심승현 (044-215-48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재은 (jaeeunpark92@korea.kr)
			사무관	변재만 (byun221@korea.kr)
			사무관	신소연 (shinsoyeon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